

3. 김은석 목사의 부흥운동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충청이남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은 1946년 장로 교회에서 신약성서기독교교회로 환원하여 1963년 1월 21일 소천 때까지 17년간 사역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존 T. 채이스 선교사는 한국에 10개의 교회와 7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보고한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1949년 7월호를 발송할 때, 타이프라이터로 작성한 별지를 1매 첨부하였는데, 한국의 교회를 19개로 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이는 채이스가 김은석 목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수도권 10개 교회를 7월호에 싣고 인쇄까지 마친 직후에 김은석 목사가 주도하는 충청이남지역의 부흥소식을 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19개는 이듬해인 1950년 말에 42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라도지방의 교회들이 추가된 때문으로 추정된다.²⁾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5년에 전국에 75개의 교회가 조사되었고, 그 절반가량인 36개가, <기독교 연감(1957)>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의 영향권인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이었다(충북 13, 충남 6, 전남 17).³⁾ 그로부터 다시 7-8년 뒤, 곧 김은석 목사가 1963년에 소천하고,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에는 충청이남지역에만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 목사가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로 보았다.⁴⁾ 힐 선교사와 테일러

1) "Korean Messenger Supplement,"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3.

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2006), p. 291.

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선교사도 이 괄목할만한 부흥성과의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⁵⁾ 특히 테일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⁶⁾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⁷⁾ 이들 증언들은 1950년대 후반기에 김은석 목사가 자신의 성경책에 삽입시킨 주소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⁸⁾ 김은석이 관계한 교회들은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나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6곳 정도만 타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었다.

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김은석은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1902년 5월 14일(음력)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찢 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이 되었다. 소천하기 3년 전에 위 수술을 받았던 터라 그게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월요일(21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2구 최봉석 장로택(고 명달재 목사 장인)에서 소

4) '김은석 목사와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324-5쪽.

5)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췌매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6)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pp. 3-4.

7)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298-99.



김은석 목사
(1902.05.14음력-1963.01.21)

천하여 충곡2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⁹⁾

김은석은 일본으로 건너가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그의 일본 이름은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고, 별명은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으며, 시모노새끼(하관), 아사(김성철의 친부 김명석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은 해방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

전을 받고 귀국하여 전도생활에 전념하면서 서울 역전의 빨간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큰 술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가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에는 여관도 없던 때라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 때 함께 활동하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¹⁰⁾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1801년 미국 켄터키 주 케인리지(Cane Ridge)에서 대부흥회를 주도하였다가 노회로부터 제명당하여 1804년에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장로교 목사 발톤 스톤에게 닮은 동일한 상황이 한국의 발톤 스톤이라 부를

9)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pp. 33, 87-89.

10) *Ibid.*, p. 35.

수 있는 김은석에게 닥친 것이었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하여,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은, 마치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부터 63년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이남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충청이남지역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요람이요, 이동신학교였다.

2) 김은석 목사의 전도인의 삶



김은석 목사는 자신의 유일한 유품인 성경에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대략 5년간의 성경 통독일지를 메모로 남겼다. '김은석의 전도인의 삶'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관한 아래의 글은 이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 성경을 흠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꿰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성경통독메모¹¹⁾에 근거한 것이다.

김은석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

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마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¹²⁾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김은석은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현금 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의 일상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김은석은 성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그리고 김은석은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11)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59-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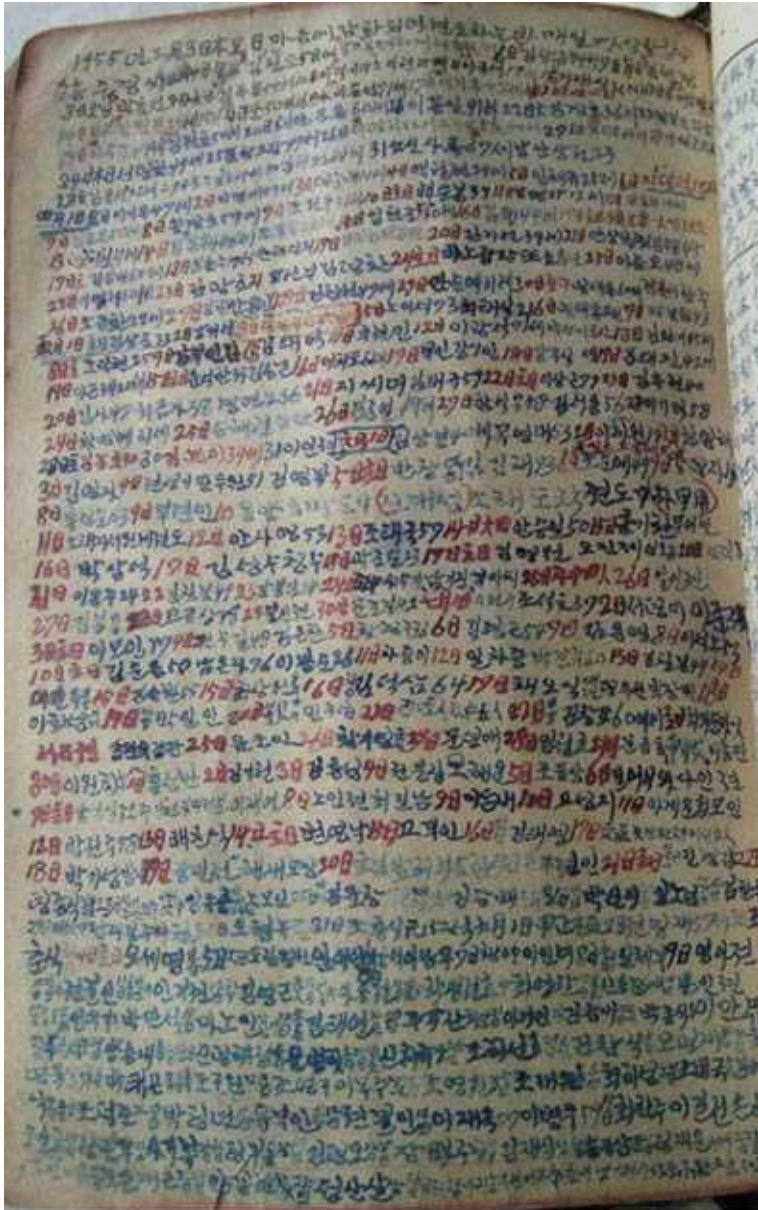
12) 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놓았다. 김은석의 성서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서의 한 페이지,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한 사실을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겨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전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김은석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전혀 구분이 없었다.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一人게 전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전도 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이었다. 김은석은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서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견인” 혹은 “전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전인”이라고 적었다.



김은석 목사가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김은석의 교회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 활동과 성서강의였다. 그가 남긴 메모는 주로 성서를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신으로서 한성신학교(한민학교)에서 33년간 가르쳤던 최용호 교수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출신인 사모 박정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



뒷줄: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목사)
앞줄: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

김은석은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루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를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천)로 옮겨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

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며,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 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김은석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목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을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마 10:34-39). 따라서 김은석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통독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 명

절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박점상 목사에게 의하면,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되었다.¹³⁾



박점상 목사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화)자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희,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

13) ‘신화신학과 제자 양육,’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10.

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김은석은 일 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뀌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로는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셋째, 성서통독강의와 전도실습이었다.

넷째, 성령 충만함이었다.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회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¹⁴⁾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회 전도사이다. 김교인

1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07.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⁵⁾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중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¹⁶⁾

4) 신약성서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은 자신이 직접 1946년에 부강교회(충북 청원군 부용면)와 1951년 늦은 가을에 선화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를 설립하고 건축하였다. 김은석은 힐 요한이 1959년부터 대전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동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던 대전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 이때의 교수진은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였고,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이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학교를 자신이 세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캠퍼스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수업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김은석은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한국에서 60쌍, 총 70쌍에게 결혼식 주례를 하였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문원섭, 이원노, 김태수, 최요열, 김은성, 김규상, 박점상, 최순국, 김은영 등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

15)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15.

16)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320-322.

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그들 가운데 강순명(천혜 경로원), 강신규, 고광석, 김교인(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 김동열,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김상호(순복음으로 이적), 김숙명, 김은영,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정만, 김태수(김교인 장로의 아들), 박점상, 박종예, 신현창(의사), 심영진, 이신, 이원노, 이혜순, 임남규, 장성만, 장주열(최요한의 큰 동서), 전도희, 정찬성(순복음으로 이적), 최요한, 최춘선(김포교회, 사회사업가. 맨발의 천사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 또는 동량교회 설립), 함태영 등의 많은 목사들과 여전도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김은석의 동료들이었을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자주 함께했던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이신 박사(신학자, 화가, 1927.12.25-1981.12.1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팔목할만한 부흥의 결과로 1951년 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김은석의 주례로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1959년에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성낙소, 심영진, 장성만, 최요열(순복음으로 이적), 이신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신약교회로의 환원'이었다. 이 모임에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

소. 김찬영. 김성철, 심영진,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윤 등이 참석하였다. 1962년에는 신탄진 천막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고, 60년대 중반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딕 래시, 힐 요한, 최용호, 힐 제인, 김중현, 고광석, 천명화(감리교회로 이적), 장주열, 노봉욱, 임춘봉, 장성만, 최요한, 조규석, 이종만, 안일승 등이 참석하였다.¹⁷⁾ 그러나 이들 여러 집회들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참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7)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p. 90-93.